

2010 새해에는

박홍석 광주상의 회장

“정부사업 적극 따내 기업발전 이끌 것”

“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긴 지역 상공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. 광주 현안사업인 R&D 특구 지정, 광주 세계광엑스포, 2015 하계U대회 준비 등을 광주 시와 적극 협력해 성공으로 이끌어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켜세우겠습니다.”

광주상공회의소 박홍석 회장은 12일 ‘지역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진다’는 자세로 지역경제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새해 각오를 다졌다.



박 회장은 10개월째 공식 상태인 상근부회장 영입과 관련, “인력풀을 넓혀 능력있는 인사를 영입할 수 있도록 연령제한을 70세까지 7년 늘리는 정관 개정안을 마련해 광주시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”며 “조만간 정관변경이 승인되면 영입절차를 거쳐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할 좋은 분을 모실 계획이다”고 말했다.

박 회장은 금호그룹 위기에 대해 “금호는 호남의 대표기업으로 그동안 지역발전과 인재육

R&D 특구·광엑스포 등 광주현안 시와 긴밀 협력

박 회장은 “무엇보다 지역 상공인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”며 “경영상 어려움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재정지원기반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이를 위해 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업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온라인신문과 콜센터, 간담회, 교육·연수 등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. 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,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,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등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부 정책사업들을 따내 지원하고, 기업 규제 철폐 노력도 벌여나갈 계획이다.

지역 실정에 맞는 시의적절한 조사·연구·자문 기능을 강화한다. 그는 “다양하고 시의적절한 조사·연구를 통해 정책당국이 경제정책을 수립

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경제계의 의견을 제시하겠다”면서 “특히 지난해 발족한 ‘광주상의 경영자문위원회’를 통해 광주상의는 물론 회원업체들의 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기능도 활성화하겠다”고 약속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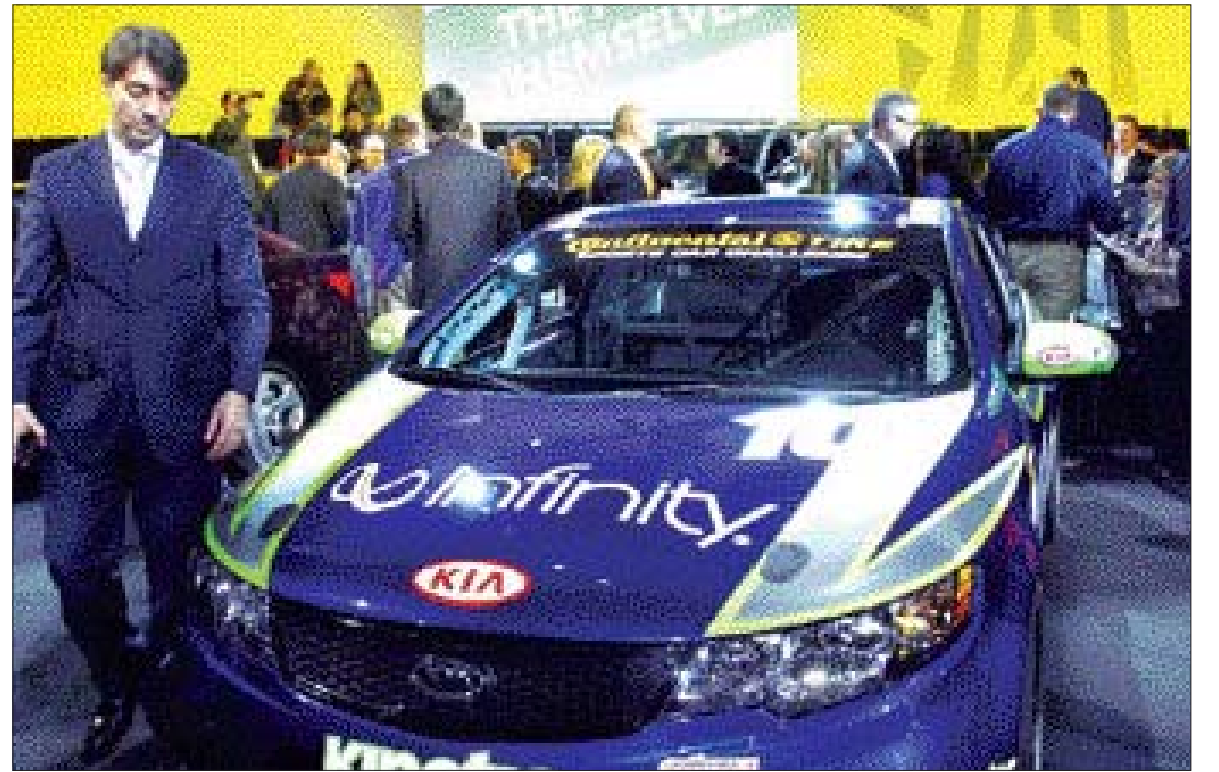
이밖에 교육·연수사업의 확대, 정보 제공 및 교류 활성화, 회원지원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광주상의의 내실화도 꾀할 방침이다.

경제계·시민단체 힘모아 ‘금호 회생’ 발판 만들어야

성, 일자리 창출, 문화예술 발전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큰 공헌을 했다”며 “금호가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와 자산 매각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와 재관단, 재무적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회생의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 그는 이어 “광주시와 경제계, 시민사회단체·시민들도 힘을 모아 금호 회생을 거들자”고 당부했다.

박 회장은 해남 출신으로 럭키산업 회장, 광주방송(KBC) 대표이사, 광주·전남지역혁신추진협의회 공동 대표회장,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.

박정욱기자 jwpark@/사진=나명주기자 mjna@kwangju.co.kr



북미 국제 오토쇼에 간 기아차

현대자동차는 11일(현지시간) 미국 디트로이트 코보 센터에서 열린 ‘2010 북미 국제 오토쇼(NAIAS, North American International Auto Show)’에서 고성능의 새 엔진을 탑재한 ‘싼타페’ 개조차(국내명 싼타페 더 스타일)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콘셉트카인 ‘블루월(HND-4)’, 포르테, 포르테 쿵 등을 선보였다. (기아차 제공)

중기 61% R&D 투자 확대

지난해 경제위기에도 신성장 동력 등 진출

경제위기에도 지난해 연구·개발(R&D) 투자를 확대한 중소기업이 60.9%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. 산업연구원은 12일 ‘중소기업의 신기술개발 실태와 정책시사점’ 보고서에서 지난해 9월21일부터 10월10일까지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전국의 409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, 지난해 R&D 투자를 확대한 기업이 전체의 60.9%를 차지했다고 밝혔다. 투자를 축소한 기업은 13.4%에 불과했다.

정부가 중점을 둔 녹색기술과 신성

장동력 등 ‘국책 신기술산업 육성 분야’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조사 기업의 8.6%가 정부의 육성정책 발표 이후 새롭게 관련 산업에 진출했고, 38.1%는 진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답했다. 유형별로는 신성장동력 분야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을 검토 중인 기업이 전체의 87.3%로 압도적이었고, 녹색기술 분야는 53.8%로 반수를 넘었다.

신성장동력 분야에서는 자원재활용(19.2%), LED응용(18.5%), 에너지(18.1%), 바이오·제약·의료기기(16.5%)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, 녹색기술 분야에선 에너지효율성 제고(33.1%) 등 순이었다. /연합뉴스

기아차 월드컵 후원 기념 ‘포르테 W 에디션’ 출시

기아차는 2010 남아공 월드컵 공식 후원을 기념해 고객들이 좋아하는 사양을 추가한 ‘포르테 W 에디션’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.

이 모델은 버튼시동 스마트키, 후방 주차보조시스템, 인조가죽시트,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미러, 17인치 타이어 및 알루미늄휠, 리어 디스크 브레이크 등 고객 선호사양을 기본 적용하되 가격은 합리적인 것이 특징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. 기아차는 월드컵이 열리는 7월까지 이 모델을 한정 제작해 판매하고 차량에는 특별 제작된 W 에디션의 엠블럼을 부착해 차별화하기로 했다. 가격은 포르테 W 에디션이 1천699만원, 2.0 Si 모델이 1천657만원이다. /연합뉴스

연말정산 자료 제공 국세청 15일부터

전남신보 총보증 5,000억 넘었다

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(www.yesone.go.kr)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공한다.

제공되는 자료는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(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·직업훈련비), 주택자금(장기주택저당차입금·주택임차차입금), 주택마련저축, 개인연금저축, 연금저축, 퇴직연금, 신용카드(현금영수증),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이다.

또 올해부터 장기주식형저축 자료가 추가로 제공되며 선거관리위원회, 대한적십자사,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3개 기관의 기부금 자료가 시범적으로 서비스된다. /연합뉴스

3만여 업체 지원...10곳 중 3곳 혜택

전남도가 설립한 전남신용보증재단(이사장 김윤옥)의 총보증 금액이 11일 5천억 원을 돌파했다. 전남신보에 따르면 담보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기업·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01년 신용보증업무를 개시한 이후 지난해 6월 총 보증 규모가 4천 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불과 6개월만에 5천억원을 넘어섰다.

지금까지 전남신보의 보증서를 이용한 업체는 3만여 개로 이는 10만 700개에 달하는 전남도내 전체 소

기업·소상공인의 28%에 해당한다. 지원효과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. 보증 이용업체의 총 종업원 수는 6만여 명으로, 사업체의 경영유지에 따른 고용은 물론 창업 등에 따른 신규 고용 효과는 2만4천여 명에 달해 일자리 창출에 큰 몫을 했다는 자체 분석이다.

전남신보는 불황에 허덕이는 영세 자영업자와 금융 소외계층을 위해 지난해 2월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,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특별보증을 시행해왔다. 그 결과 설립 이후 2008년까

지 8년간의 2천900억 원에 버금가는 2천100억 원의 특별보증을 제공해 보증 규모가 획기적으로 증가했다.

김윤옥 이사장은 “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는 아직 이르므로 심사기준을 완화한 보증운용 비상조치를 올 상반기까지 연장 시행하겠다”며 “특히 개인신용 등급이 7등급 이하인 노점상 등 무등록, 무점포 사업자 대상으로 한 금융소의 자영업자 특별보증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”고 밝혔다. /동부취재본부=김동호기자 dhkim@

광주·전남 훼손지폐 9,305만원

5만원권도 59장

지난해 광주·전남 지역에서 불에 타는 등 심하게 훼손돼 교환된 5만원권 지폐가 발행 6개월만에 59장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.

1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에 타거나 습기와 곰팡이에 의해 부패하는 등 심하게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소손권(燒損券)을 새 돈으로 바꿔준 규모

는 총 614건, 9천305만원에 달했다. 이는 전년도에 비해 건수는 22.9% (182건) 감소했지만 금액은 22.7% (1천719만원) 증가한 것이다. 1건당 평균 교환금액은 15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60.0% 증가했다.

소손 사유별로는 불에 타 훼손된 지폐가 4천637만원(49.8%)으로 전체 소손권 교환금액에서 가

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습기와 곰팡이 등에 의한 훼손 2천830만원(30.4%), 장판 밑에 보관해 훼손된 경우 1천71만원(11.5%) 등으로 나타났다. 전체 소손권 교환 실적 중 1만원권이 차지한 비중(장수 기준)은 72.8%로 전년(68.6%) 대비 4.2%포인트 증가했다. /윤영기기자 penfoot@kwangju.co.kr

Advertisement for '2010 WIZARD ISLAND Business Explanation Meeting' in Gwangju/Jeonra region. It features a man in a suit holding a trophy and text about business support and financial aid. Key text includes '품격있는 교육사업가의 꿈' and '2010 위즈아일랜드 사업설명회 광주/전라지역'.